

W:WOOSUNG

2024년 10월

주간 축산 이슈

뉴스클리핑

10월 5주차 HOT ISSUE

- 럼피스킨 확산...정부·농가 '비상'
- 국내 가금농장, 올해 동절기 첫 AI 발생

럼피스킨 확산... 정부·농가 '비상'

충남·강원 이어 경북·충북까지...올들어 16건 발생

지역을 가리지 않고 럼피스킨이 잇따라 발생해 방역 당국과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그간 럼피스킨이 발병하지 않았던 지역서도 확진 사례가 나와 우려가 크다.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0월 28일 강원 원주시와 10월 27일 충북 충주시, 10월 26일 경북 문경의 한 한우농가에서 피부 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10월 25일에는 강원도 원주의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됐고, 10월 24일에는 강원도 인제와 충남 당진의 농가에서도 각각 럼피스킨이 확인됐다.

특히 원주와 인제는 모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럼피스킨이 발생하지 않은 곳이고 당진의 경우 충남 지역 첫 번째 사례다.

이로써 올해 국내 럼피스킨 발생은 지난 10월 29일 기준 총 16건으로 늘어났다.

대책본부는 해당 농장들에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전국 모든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소독 및 매개 곤충 방제 등 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럼피스킨 방역 관리 실태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26일과 27일을 '전국 긴급 일제 방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동시 소독을 진행했다. 특히 소규모 농장에서도 농장 내·외부를 일제 소독하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에서 이행 실태를 점검기도 했다.

원유 감축 찬바람 부나... 낙농가 좌불안석(I)

푸르밀 사태에도 낙농가 생산권 보장대책 전무...불안감 증폭
용도별차등가격제 입각 상생 방안 모색,정부 중재 역할 필요

원유 계약물량 감축 움직임이 유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유아수 감소, 유가공품 중심으로의 식습관 변화, 유제품 수입량 증가 등으로 우유 소비가 감소하면서 국내 유업체들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다.

이에 유업체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효율화로 실적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 중 오퍼리스크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적자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양유업은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를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하고 생존전략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일평균 200톤 이상의 잉여유가 발생하면서 이를 처리하는데 한계에 이르자 직속 납유농가에 협조공문을 보내 원유생산량 감축을 요청하고, 남양유업과 거래하는 집유조합을 대상으로 추후 물량 계약 시 30%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만약 내년부터 거래물량이 줄어들면 남는 원유를 처리할 뽕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당장 다른 납유처를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가들에게 원유생산량을 줄이도록 하는 것도 결국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원유 감축 찬바람 부나... 낙농가 좌불안석(2)

물론 원유 계약물량을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경과를 지켜 볼 필요는 있지만, 낙농업계에선 이러한 감축기조가 다른 유업체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 매일유업에서도 내부적으로 원유 계약물량 감축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농가들 사이에선 푸르밀 사태로 낙농업계에 생산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 부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음에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구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남양유업에 납유하고 있는 한 농가는 “푸르밀 사태로 납유농가는 쿼터가 휴지조각이 된 채 생업을 잃을 뻔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지면서 유업체가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납유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2년여가 지났음에도 달라진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낙농가들이 대안 없이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사례가 남겨지지 않도록 상생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업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하면서 원유생산량을 200만톤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업체가 먼저 원유감축을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목표는 실현될 수 없다”며 “낙농가와 유업체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낙농은 제도의 산물로 용도별차등가격제 원칙과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상생방안 마련에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저지종 산업화 동향(1)

(1) 2010년 민간서 첫 도입, 사육기반 확대 정책 추진

우리나라에선 품종 다변화의 일환으로 2010년 수정란 형태로 들여와 서울우유협동조합, 당진낙농축협,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등 기관 및 일부 농가서 사육 중에 있다.

2024년 9월 혈통 등록 기준으로 86농가서 814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기준 주요 기관별 저지종 사육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이 225두로 가장 많은 두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평균 1천 520kg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단일목장으로 제주 다원목장이 120두로 가장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서울우유와 다원목장(제주우유)은 저지유를 각각 ‘골든 저지밀크’와 ‘제주 저지우유’로 상품화해 판매하고 있다.

당진낙농축협은 9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일평균 500kg을 생산하고 있으며, 저지본 저지요거트를 판매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8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일평균 240kg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는 연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60두를 수정란 생산·공급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다.

국내 저지종 산업화 동향(2)

(2) 경기도내 젓소의 5%, 저지종 대체 목표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직접 도내 낙농산업의 신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낙농가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1월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낙농자원팀을 발족하고 ‘퀸스저지’(가칭) 저지종 육성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는 도내 젓소의 5%를 저지종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0억9천2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국산 우수 유전자 보급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 저지 농가협의체 회원을 대상으로 수정란을 무상공급하고 있다.

낙농자원팀과 연구소는 수정란 및 정액생산을 위한 실험실을 구축하고 저지 수정란 생산을 위한 종축 54두(암)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지 성감별 동결정액 400개와 OPI 기법을 활용해 수정란 1천개를 생산하고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홀스타인에 비해 생산량이 적은 저지종의 단점을 보완해 참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별도의 유대체계 조성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대 차액 보전비를 지원해 농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사업비는 총 1억5천250만원으로 축산경제연구원의 ‘경기도 낙농 신품종(저지) 도입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리터당 유대보전비 359원을 지원한다.

첫 유대보전비 대상목장은 여주 요한목장(대표 최돈형)으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의 협조를 통해 하반기 저지 유 납유를 시작하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내 저지종 산업화 동향(3)

(3) 제주도 특화 품종으로 저지종 활용 계획

제주우유(대표 김정옥, 다인영농조합법인)는 저지종 산업화를 선도하고 있는 민간기업이다. 김정옥 대표는 2019년부터 저지종 도입을 시작했으며, 현재 구축사(다인목장)에서 저지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8월 기준 전체 사육두수 120두 중 35두가 착유 중으로 국내 단일목장 중 최대 규모다.

저지축군에서 생산하는 원유량은 일평균 830kg으로 이를 가공해서 만든 ‘제주 저지우유’는 마켓컬리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다.

제주우유는 앞으로 저지소 사육두수를 더 늘려 품종 전환을 추진하면서 2027년까지 일평균 15톤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다.

제주우유는 생산량이 늘어나면 저지우유 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믹스, 버터, 그릭요거트 등으로 제품군을 늘려 저지우유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유제품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섬과 동시에, 도내 다른 농가들도 저지종 전환에 참여시켜 ‘제주 저지소 사육농가 협의체’를 구성해 저지종으로 제주도의 낙농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6차산업 접목의 일환으로 구축사를 저지 테마파크로 만들어 제주 저지산업의 홍보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영국의 저지섬과 같이 국내엔 제주도가 저지 특화 낙농 브랜드라는 인식을 안착시키고 관광산업으로 확장시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저지종 산업화 동향(4)

(4) 한국형 저지종 보유·유전자원 보급

2010년 국내 최초로 캐나다산 저지종 수정란을 도입한 당진낙협은 2021년부터는 저지유를 사용한 요거트 제조를 위해 유가공공장을 설립해 ‘저지본 수제 저지요거트’ 4종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식품 기업들과 함께 저지 아이스크림, 저지 그릭요거트 등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당진낙협은 일본 오카야마 히루센 낙농협동조합을 벤치마킹해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당진낙협은 조합 차원에서 지난 10여년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한국 기후와 환경에 최적화시켜 개량해온 조합 소유의 저지종을 활용해 2022년부터 ‘한국형 저지 수정란’ 생산 및 공급 사업을 실시, 농가들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저지종 수정란을 공급해 사육기반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2028년엔 총 사육두수 990두로 일평균 8천200kg까지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농가들이 보유한 저지종 활용방안도 마련해뒀다.

저지종 수정란 공급 사업을 통해 2024년도 현재 조합 농가에서 저지종 송아지가 배출되고 있는데, 저지 착유우를 보유 중인 농가가 원할 경우 당진낙협 스마트 ICT 낙농단지에서 조합의 저지 분리 착유 시스템을 통해 착유를 실시함으로써 대규모 분리 납유를 하는 방안을 다방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내 저지종 산업화 동향(5)

(5)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제시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비 70%, 자부담 30%로 성감별 수정란 수입 및 이식 관련 부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9농가에게 167개, 임실군에 97개의 수정란을 공급했으며, 향후 지방비 매칭 등으로 농가 부담을 완화시켜 생산기반 확대를 유도하고 저지유 수요처 발굴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 산유량, 유성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생산자-유업계의 자율적 원유가격 결정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규모화·분리집유를 위해 착유 및 집유 설비 지원과 저지유 사용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시장 개척으로 고정 소비층 확보에 힘쓰는 동시에 저지종의 작은 체구를 고려해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완화(축산법 시행령)하고 체계적인 개체관리와 개량을 위해 이력제서 소의 종류를 홀스타인, 저지, 기타품종으로 세분화를 해서 교잡종 까지 혈통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저지종 산업화의 연착륙을 위해선 지속적인 R&D를 위한 지원, 다양한 유전자원 확보, 저지유 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납유처(유가공업체) 및 판로 확보, 소비자 홍보용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산업기반이 구축되려면 별도의 유대산정체계가 조속히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 지자체, 기업, 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지종 사업과 발맞춰 중앙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농가들의 높은 참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돼지 농장 평균 두수 2천두 돌파

돼지 사육 농장 평균 사육 두수가 처음으로 2천마리대를 넘어섰다.

돼지 사육두수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농장수는 줄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소규모 농장은 더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기준 돼지 사육농장수는 5천560개로 전분기보다 1.9%, 지난해 동기간 5천 721개 대비 2.8% 각각 줄었다. 이런 가운데 돼지 사육두수는 1천18만2천마리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이로써 농장당 사육두수는 2천11마리로 일년전보다 1% 늘면서 농가가 아닌 농장수를 기준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처음 2천마리대를 기록하게 됐다.

특히 소규모 농장들이 많이 사라졌다. 사육두수 1~499두(1천340개), 500~599두(924개) 규모 농장은 17년 이후 각각 26.3%(479개), 24%(292개) 줄었으며 1천~1천999두(1천418개), 2천~2천999두(787개)는 각각 9%(140개), 8.7%(75개) 감소했다. 1천두 이하는 1/4 가량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처럼 소규모 농장들은 사라지는 가운데서도 그 이상 규모 농장들은 되레 늘었다. 9월 기준 3천~3천999두 규모는 449개, 4천4천999마리 규모 농장은 221개, 5천~9천999마리는 310개, 그리고 1만마리 이상 농장은 111개로 지난 17년 이후 각각 24%, 7.8%, 20%, 4.7% 늘었다. 3천두 이상 농장이 17년 이후 17%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농장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며 국내 양돈산업의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양돈 생산비가 급등하고 시장은 불안해지면서 소규모 농장 감소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동시에 규모화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가금농장, 올해 동절기 첫 AI 발생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서, H5형 AI 항원 확인

올해 동절기 가금농가에 처음으로 AI가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산란계 700여수, 오리 80여수 사육)에서 H5형 AI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다.

지난 10월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처음으로 H5형 AI 항원이 확인된 것.

중수본은 H5형 AI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방역실시요령’ 및 ‘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오늘(10월 30일) 0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상대책 없는 소급적용, 위헌 소지…규정 철회 촉구

산란계협회는 마리당 사육 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이 2018년 9월 1일에 이뤄진 점을 지적, 기준 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소급적용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이 없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여기에 편익 대비 피해가 과다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확대 적용으로 산란계업계에 예상되는 피해액은 시나리오 별로 연간 1조5천799억 원에서 3조7천586억원이며, 1일 계란 소비량 4천500만개 중 약 1천200만개가 부족하게 되어 계란 가격이 최대 57% 급등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정부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다.

또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가 주로 선호하는 계란은 난각표기번호 4번에 해당하는 0.05㎡/수의 면적에서 생산된 값싼 계란임에도 0.075㎡/수를 적용하면 이 4번 계란은 전부 사라지게 되며 서민과 차하위계층의 가계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철새 이동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사육환경이 전혀 다른 EU 등을 모방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자급률을 붕괴시킬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남아 있는 기존 시설을 교체할 경우 산란계 10만 마리당 케이지 교체비용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시설현대화 지원자금의 상환기간이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케이지의 내용연수인 25년을 무시하고 7년 만에 철거할 경우 부채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산란계협회 측은 “분석에 따르면 매출이 줄고 생산단가는 증가함에 따라 계란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경우 농가 수익성 악화로 인한 도산이 우려된다”며 “적어도 법 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에 한해서라도 내용연수 만큼은 사용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란계 8천만 마릿수 시대 열렸다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처음으로 8천만 마리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8천54만5천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441만8천마리(5.8%), 전분기 대비 232만마리 (3.0%) 각각 증가했다.

통계청 발표 기준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8천만 마리를 넘어선 것은 가축동향조사 발표 이래 처음 있는 일. 2010년대 들어 6천만 마리 대를 유지하다 2015년 처음으로 7천만 마리를 넘어섰고 9년 뒤인 올해 8천만 마리를 넘어선 것이다.

사육 마릿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계란 가격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만큼 소비가 늘었다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생산성 저하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추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산란율 저하가 심각했고 호흡기 질병 등이 번진 것도 같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이번달 계란 생산량을 하루 평균 4천900만개, 다음달은 4천951만개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소비가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가 계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가 상당수 줄어든데다 생산성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사육 마릿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며 “농장에서도 겨울철 고병원성 AI라는 변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고 산란계 입식과 출하 일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